

〈2011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
다운지요”(시 8:3,9)

주님의교회 모든 가정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7월은 들과 산, 강과 바다... 모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가지는 섭의 계절, 영적인 휴식과
영적 충전의 계절입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열리
는 성경학교, 수련회에 보내주십시오.
그 어느 시간보다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수고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동안 주일마다 짧은 시간동안 만났
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 보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방
학을 시작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1년 여름,
우리 아이들이 키와 몸과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기대하며 부모님들의 기도와 도움을 기대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 주의 도우심과 긍휼의 사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부서	날 짜	장 소	주 제
영아부	7.3	교회	꿈 쑥쑥 비전아이 브이
유아부	7.9	교회	꿈 쑥쑥 비전아이 브이
유치부	7.23	교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7.24~26	안성 너리굴문화마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Who is Jesus?
초등부	7.24~26	가평_드림아일랜드레저타운	꿈을 향해 비상하여 빛이 되어라
소년부	7.24~26	양평_파라다이스 청소년 수련원	진짜 예수님 알기! Knowing the Real Jesus!
중등부	7.22~24	은평구_팀비전센터	어두움에서 돌이켜 새 소망으로 나아가라!
고등부	7.24~26	교회	온 맘 다해!
고등부비전트립	8.7~13	베트남호치민	Action!
청소년사역원- 미지립 청소년캠프 여름캠프	7.28~30	교회	Act Prayerer!
청소년사역원- 뮤직아카데미찬양워십캠프	8.1~3	교회	Turn It Around!
어와나 불티단 - 성품학교	8.27~28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요

〈청소년사역원 제2차 사역자세미나〉

“여름사역으로, 사역을 넘어 사역으로, 2011하반기 사역으로”

지나온 한해의 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며 청
소년사역원은 제2차 사역자세미나를 6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소예배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역자세미나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여름행사를 기
획하고 실제로 이루느라 힘쓰고 애쓰는 청소년사역자들
의 사역현장에 힘을 돋우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넘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도록 안내하며,
새로이 맞이하는 남은 하반기사역을 은혜롭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름사역으로 사역을 넘어 사역으로 2011하반기
사역으로”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열두가지 수련회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다양한 여름
수련회의 기획과 실제(전경호목사, 교육목회실천협의회)
를 나누며 구태의연한 수련회의 모습을 벗어나 청소년들
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열
린 공간의 창조로 다가서고, 입시전쟁시대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던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역자
들이 어떻게 담지하고 다가서야 할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통하여 여름사역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들을 격려했다.
다양한 동영상, 입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수련회동안 이루
는 여러 가지 설교의 모습을 생생한 현장감으로 전달해
준 청소년을 위한 설교의 기획과 실제(홍용희 목사, 동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세상을 넘겨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이
끌어주는 사역자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여름사역으로 든
든하게 이끌어주었다.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를 조성하고 전인적인 강건
함을 배려하는 손길을 내밀고 있는 임향자 목사(하늘꿈학
교)와 함께 하는 시간은 지금의 사역을 넘어 통일시대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청소년사역자들의 열정어린 모습을
일구어주는 모판이 되었다. 북한에 두고 온 식구들을 마
음한잔에 깊이 묻어두고 남한에서 힘든 마음을 이겨내며
학업을 이루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백을 진술하면서도 묵
직하게 담은 동영상상을 대하며 이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함

께 어울림의 마당을 이루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담
아야할지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청소년들의 실존과 만나야 하는 사역현장의 모습을 구체
적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찾아 나
서야 하는 방법을 짚어주며 2011 하반기사역으로 안내해
주며 청소년들을 향한 영혼구령의 열정에 불씨를 지핀 김
인환 목사(광교지구촌교회)의 명강의로 모든 세미나일정
을 마무리하였다.

이른 새벽부터 먼 길을 나서 찾아온 사역자들의 정성과
열정이 숨쉬는 공간, 청소년사역원 개원부터 시작하여 한
번도 빠짐없이 세미나를 찾아주시는 열심있는 사역자들
의 발걸음이 진지하게 자리하고, 식사와 간식준비로 일상
의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손길이 있기에 교회바깥세상
으로 섬김의 손길을 펼치는 사역자세미나는 예수그리스
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은 복음의 편지가 된다. 세찬
장마 빗줄기가 일상을 두드리는 시간, 성령의 단비가 청
소년사역자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자리가 된 청소년사역
원 제2차 사역자세미나의 모습은 이제 다음, 또다른 모습
으로 섬길 채비를 단단히 다짐하는 자리가 된다.

〈류은정 목사 _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

2011 주님의교회 임직자

주님의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주일(6월 26일)에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군이 되시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1 주님의교회 임직자소개

* 지난 6월 26일에 발행된 제287호 함글함을 '임직자 소개'에 일부 사진이 잘못 기재되어 재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로

안수집사



김성구



임근원



이상록



노대홍



윤희육



김기창



김관호



노환옥



박동수



하영중



김순중



강석인



김익훈



김달원



박현옥



김복수



나영일



김이권



임익수



하태원



이성균



이재덕

권사



이연숙



장근희



최인실



김동순



조성희



김종란



손경숙



유석희



최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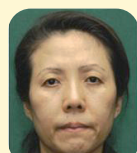
우금순



박주희



정승아



곽인평



오미혜



김순희



김혜중



홍기현



임미경



왕명숙



김현희



성향순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宣 教 (선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7월 첫 주는 주님의 교회 선교주일이다. 宣敎(선교)는「종교를 전하여 널리 펼침」이라는 의미이며 기독교는 선교사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위에 우뚝선 종교이다. 선교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자.

★宣(널리 펼 선, 베풀 선)은「집이나 관청 또는 지붕을 뜻하는 宀(집 면, 갓머리)」과「트(펼 선, 걸칠 공)」의 합자이므로「집 또는 관청에서 뜻이나 인심 따위를 펼쳐 베풀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트(펼 선, 걸칠 공)은「하늘과 땅 사이를 의미하는 二(두 이)」와「해를 상징하는 日(날 일)」의 합자이므로「하늘과 땅 사이에 햇벌이 펼쳐진다. 또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걸쳐있다」로 풀이된다.

★敎(가르칠 교)는 앞쪽의「耂(인도할 교)」와 뒤쪽의「攴, 위하다, 애 쓰다의 뜻이 있는 攴(칠 복, 등 글월 문 방)」의 합자이므로「바른길로 인도하려고 애써 가르친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耂(인도할 교)는「산(算)가지로 셈하다. 사귀다. 본 받다의 뜻이 있는 耂(점패 효)」와「아이, 자식의 뜻이 있는 子(아들 자)」의 합자이므로「본 받을만한 언행으로 자식을 인도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_ 갈 6:9

통 권 _ 제 288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7월 3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교회개척 감사예배 올려

_ 길가에교회 이은 두 번째 형제 교회



주님의교회의 창립 23주년 기념일인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 거여동 정림빌딩에서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와 5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개척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지난 2005년 12월 11일 주님의교회에서 남양주시 도농동에 창립한 길가에교회에 이은 두 번째 형제 교회로 기록된다.

개척교회 목회의 어려운 짐을 감당하게 될 이호 목사의 개척사로 시작한 감사예배는 당회 서기인 김용일 장로의 기도와 박원호 담임목사의 설교, 김도복 은퇴장로의 축사와 서정운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박원호 목사는 로마서 8장 26~30절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그 동안 쌓인 성도들의 기도로, 주님의교회에 주신 개척교회의 비전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호 목사는 “주보 광고 외에는 따로 알리지 않았고, 당일 창립기념 행사가 많았음에도 뜻밖에 많은 성도들이 감사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면서, “개척교회에 대한 성도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주님 말씀에 따라 있는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키워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호 목사는 ‘예수가 주인이시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성도간의 참된 교제로 기쁨을 나누는 교회’를 목회의 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하면서, ‘특히, 거여동 인근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가정들과 함께 하고, 이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온전히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초기 목회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목사는 또한 ‘개척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뜻있는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 나갈 동역자의 동참이 깊이 요청됨’을 강조했다.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이 교회는 7월 첫 주일인 3일부터 매주 11시, 예배당으로 예정하고 있는 정림빌딩 2층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내부 공사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창립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는 이호 목사(010-5496-2334)에게 직접 연락하여 뜻 깊은 섬김의 기회를 함께 하길 기원한다.

< 편집부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_ (롬 8:28)



창립23주년 감사예배



6월 26일(주일), 주님의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간 목회력

<비전트립 안내>

- 파송식: 7.3(주일) 3부예배시
- 케냐팀 일정: 7.3(주일) ~12(화)
- 헝가리 후원선교물품 기증: 7.3(주일)

<특별세례식(7.31)안내>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청
- 교육: 7.17/24

<교육목회원 성경학교 안내>

- 영아부: 7.3(주일)
- 유아부: 7.9(토)

<킹덤비전 영어캠프>

- 신청: 7.10(주일) 교역자실
- 자원봉사자 모집: 보조교사, 봉사자등..

<30플러스 여름수련회>

- 7.9(토) ~ 10(주일) / 진새골

함글함글의 기사를 보내주세요.

함글함글에 글을 쓰기 원하시는 분은 기사를 작성하셔서 hamletter@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에서 검토 후 실어 드립니다.

문의: 홍기협 집사 T.010.3779.0926

2011 주님의교회 교구수련회

1 교구

진정한 가족임을 실감한 소중한 하루



지난 6월 24~25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다윗 동산에서 유성훈 교구담당 목사와 교구 가족 1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교구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 깊이 느끼게 된 뜻 깊은 수련회였다.

수련회 장소인 다윗동산은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였으며, 풍성한 식사도 만족스러웠다. 저녁을 마친 후 9시에 저녁기도회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유 목사의 인도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를 하는 가운데, 함께 한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귀한 느낌을 가졌다. 1시간 30분 예정의 집회였으나 열기와 성령 충만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방별 미션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팀이 개발한 아이디어와 소품으로 저마다의 성극을 연기하여,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예수님이라면, 나라면” 제목의 성극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임혜현 집사의 ‘거룩한 말투’는 좌중의 배꼽을 잡게 했다. 이어서, 초청 강사인 김용구 목사가 소개한 DISC 행동유형검사는, 각자의 성격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전반적으로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심을 느꼈던 감동적인 수련회였다. 초보인 집행부의 시행

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착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음 수련회를 더 잘 하기 위한 수련이었다”는 중론이었다.

시종을 함께 하며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않은 양동훈 은퇴장로, 신정웅 장로, 장일형 장로와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집행부, 참석한 1교구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은 하루였다. < 구정숙 권사 >



3 교구

놀라운 수련회

주님의교회 3교구는 2011년 6월 24~25일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교구담당 배현성목사와 50여명의 겨자씨 식구들이 모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로 교구수련회를 가졌다. 배현성목사는 각자 왜곡된 왕의 모습을 찾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각자가 속한 조원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찾아가자고 하였다. 1박2일의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우리자신 스스로에게 하면서, 참가자 모두는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되이 고백하였다. 진정한 왕을 모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고 모든 일정을 은혜 중에 마쳤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놀라운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하나님께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가자 모두가 마음껏 사랑과 축복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둘째 날의 특강은 “순례자로서 자연과 공간을 어떻게 영적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갑자기 주어진 성극 과제로 많은 이들이 부담을 가졌지만 말씀을 주제로 한 현대판 성극을 각각 놀랍게 연출하여 연기로 표현하며 주어진 주제 말씀을 나누며 모두가 함께 웃고 하나 되는 즐거운 추억도 더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장마가 시작되고 교구 특성상 원거리 교인들이 많아 교구식구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를 만난 것처럼 교제하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주신 친밀감을 마음껏 쌓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린다. < 정경혜 집사 >



4 교구

수련회를 다녀와서

지난 24일 1박 2일의 수련회를 곤지암 쪽에 위치한 잠실교회 수련장을 다녀왔다. 우중임에도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오후4시 출발하여 1시간도 채 안 걸려 도착했다. 높은 산들이 뿔뿔히 있고 울창한 나무들로 인하여 서울 근교임에도 강원도 깊은 산속에 와 있는 느낌



이다. 도심의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난 상쾌함과 고즈넉한 화평이 온 몸을 감싼다. 석식 후 레크레이션계의 여왕이라는 남정식집사님의 인도로 엔돌핀이 넘치고, 배꼽이 빠지는 친교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늘 긴장하고 무장한 빗장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공광승목사님의 룯기를 통하여 인간의 반복되는 배신의 역사를 공부하고 룯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에어로빅으로 몸을 풀고 이번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인 이단들의 문제점을 연구하시는 탁지원소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이단 종파의 활동상들, 그곳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들 미처 몰랐던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었다. 적

은 청중으로 귀한 강의를 듣는 것이 강사에게 미안한 감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못듣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고 우중이었지만 오랜 기간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준비팀들의 수고로 정말 귀하고 알찬 시간들이었다.

< 홍연표 협동장로 >



2011 주님의교회 교육수련회

6 교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님의교회 6교구 수련회에?

올 초부터 교구수련회 장소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팀장이 세워지고 준비팀이 구성되며 장소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바다 앞에서 바비큐를 하며 그 옆에 펜션이 있는 곳 그리고 독립된 통나무 예배 집회실.... 생각보다 순조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팀을 구성하고, 음식과 간식을 준비하는 모든 순서들.. 3차 답사 끝에 얻게 된 장소, 해미순교성지까지... 의미있는 수련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일주일 전 장마시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야외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를 어쩌나... 생각이 멈춰섰습니다. 수련회 당일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비가 내리고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면 비가 그치고 잠시 쉬러 숙소로 들어가면 비가 내리고



바닷가에서 공동체훈련을 하면 비가 그쳤습니다. 둘째날 이동을 하면 비가 내리고 순교지를 거닐고 순교자들의 나무, 호야나무 밑에서 단능예배를 드릴 때는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능예배 축도를 하니 다시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전체 식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돌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긴 준비기간과 노력과 헌신으로 얻어지는 은혜보다 하나님 그 한분만으로 뿜어져 나오는 능력과 은혜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대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정현 목사〉

7 교구 수련회 다녀 왔습니다 ^^

1박2일의 교구 수련회를 위하여 2달 전부터 조광민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온누리교회 Acts 29 비전센터, 선교사들이 기도하며 파송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를 7교구 가족수련회의 공간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여는 예배로 "With JEJUS, With FAMILY" 주제 아래에 성령 충만한 7교구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SCP Soloists 초청음악회는 주변 교회 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모두가 감동을 나누는 힘이 있는 수련회가 되었고 이 공연을 위해 헌신하신 김성구 장로님의 열정에 모두 감사드렸습니다.

조별 친교 시간에는 팀원들의 자기소개와 간증으로 서로를 더 잘 알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취침시간에는 방별로 7교구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인사와 기도

하루를 마감했으며, 기도하기 사모하는 팀은 새벽2시까지 부흥회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련회의 밤은 그렇게 깊어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반에 다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기념관으로 가서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엄일용목사님의 배려로 이른 시간에 경건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순교자의 그 숭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특강시간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팔로 감싸 안으사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뜨거운 말씀과 기도, 섬과 음악, 그리고 배려와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으로 배려하고 몸과 재정으로 섬긴 분들.....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윤성진 안수집사〉

9 교구 새일을 행하는 여호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은혜였다. 여러 모양으로 넉넉하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뵈며 이분들의 섬김에 많은 감사를 드린다. 남편은 회사에서 교육으로, 아들은 기말고사 시험으로 인하여 나 또한 참석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잔치 준비



는 되었는데~ 누가 갈 것인가? ‘강권하여 채우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나를 수련회로 이끌었다. ‘주님 제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시로 기도하며 기다렸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겔36:25~27) 이번 수련회 주제이다. 주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수련회에 참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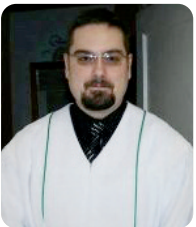
가평 그린 캠프 유스호스텔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적당히 내리는 비는 동화속의 그림을 연상케 했다. 늘 바쁘고 여유 없는 생활에서 정신없이 참석했지만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의 찬양이 있었다. 조별 모임에서는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집사님들과 교제 할 수 있었고, 조별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사도신경을 몸으로 표현한 조, 수화로 주기도문을 준비한 조, 성경을 암송한 조 등~ 각기 다른 숙제를 가지고 최선의 준비를 한 조

별 발표 시간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찬양팀의 성령 충만한 인도는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말씀에 대해 기대하며 사모하는 내게 신실하신 주님은 말씀하셨다. ‘진실이 사람을 변화 시키지 않는다. 배려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 시킨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려와 사랑임을 마음 깊이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하면서 동시에 기도한다. 주님! 나의 말과 행함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우침은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날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매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 오늘하루도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무릎꿇기를 소망해본다. 〈류혜경 집사〉

<주님의교회 영어사역부>

삼겹줄이 되고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9-10,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영어사역부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짧은 기간을 섬겼지만 앞으로 여러 성도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기도와 소망이 앞으로 주님의 교회 영어사역부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어 어떤 방향으로 영어 사역부를 이끄실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 앞에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어 사역부를 부르시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삼겹줄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언어의 차이가 가끔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 이긴,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긴, 혹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임재하심.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역하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져진 여러겹 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라도 저희와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킹덤 비전 영어캠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사역을 위해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방면에 봉사가 필요하므로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 라도 봉사를 원하신다면 연락바랍니다. (010-3710-8317)

또한 저는 저희 영어예배에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 저희 예배 중 일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영어예배가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말씀은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주요 요점을 읽 으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재 저희는 제가 매주 만들어 가는 교재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으며 이 성경공부가 모 든 관심있는 성도님들에게 열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영어예배는 주일 오후 1:30에 1층 제 3집회실에서 열리며 영어성경공부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한 간간히 다른 여러 봉사기회를 저희 영어사역부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되심을 위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Kingdom Vision English camp 2011

살림! 올해 두번째로 킹덤비전영어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공로를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올해도 올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가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캠프 개요>
8월 4일(목) 부터 8월 13일(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월7일 주일은 반일)
<참가 대상> 2학년~6학년
<교사진> Footsteps Mission에서 오시는 12분의 선생님
<주요 일정>
 캠프 참가 신청 - 6월 19일~26일 주일 오후 3시까지, 교회 1층 로비 신청데스크에서
 캠프 참가 어린이 확정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납부 순서대로 확정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반배정 테스트 - 7월 24일 주일과 7월 31일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교회 로비로 오시면 되고
 테스트 시간은 5분 내외이며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참가비> 38만원
<연락처> 이동희 (010) 3710-8317 / 정혜정 (010) 4159-8948 / 안경상 (010) 3391-0985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샘 웨딩턴 목사

< English Ministry,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

Being A Threefold Cord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ward for their toil. 10 For if they fall, one will lift up the other; but woe to one who is alone and falls and does not have another to help...And though one might prevail against another, two will withstand one. A threefold cord is not quickly broken. Ecclesiastes 4:9-10, 12

Greetings and peac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the Christ! I am so happy and deeply honored to serve your congregation as its English Ministry pastor. You, the members of PCL have been very gracious and kind to me and my family, and I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This prayer, this hope has gotten me to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English Ministry here at PCL and what God may be directing us to be. I believe the reading from Scripture that I began this article with is what God is calling English Ministry to be in relation to the larger church: a threefold cord.

While it is true that language can sometimes be a hurdle

to working together,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whether we speak Korean, English, or both, we all serve one Lord and have one faith. All of us are working

towards one set of goals: the glory of God and the coming of His kingdom. Therefore,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strengthening our bonds so that we might become that closely knit cord, bound together in Christ's love.

I would also like to invite any and all of you, if you are willing, to come and work with us. Currently, we are in the planning stages of our yearly "Kingdom Vision" English Camp, and we need help.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re fluent in English, Korean, or both: we need you. We need people to help us on many different levels, so don't worry about whether or not you feel qualified. If you are interested, I would direct you to contact Deacon Lee at 010-3710-8317.

I also invite you to worship with us. While you may or may not understand everything in worship, we are currently working very hard to make the service and the sermon as accessible as we can. For example, every sermon comes with a Powerpoint presentation in which you can read as well as listen to the sermon's

major points. We also invite you to study God's Word together with us. We are currently studying the book of Genesis with a curriculum that I am writing. It is our hope and goal to make the Bible study accessible to everyone.

We worship in English every Sunday on the 1st floor in classroom #3 at 1:30pm, and our Bible Study is at 3pm in the same room. We also have other service opportunities that you might hear about from time to time. However, whether you are able to come or not, let us always pray for one another so that this church will have the good reward of God's glory for our toil.

God's blessings, Sam Weddington

